

# 23

## 복음을 전한 집사 빌립

행 8장

찬송가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양 139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배울



1. 교회를 섬김과 동시에 복음 전파에도 열심이었던 집사 빌립에 대해 압니다.
2.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압니다.



너는 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2)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행 8:34~36)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행 8:1, 4)

Now Saul was consenting to his death. At that time a great persecution arose against the church which was at Jerusalem; and they were all scattered through- out the regions of Judea and Samaria, except the apostles. Therefore those who were scattered went everywhere preaching the word (Ac 8:1, 4)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스테반의 순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행 1:8).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 하십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 교회에 대한 큰 핍박으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 리아로 흩어졌는데, 핍박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찾아봅시다(행 8:4~8).

**2**

빌립은 성경께서 복음을 활발히 전하던 자신을 사람이 별로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갔을 때 만난 사람은 누구였나요? 우리 역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이 전해질 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다음 말씀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 ① (딤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 )를 얻든지 못 얻든지 ( )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 ② (벧전 3:15~16) 너희 마음에 ( )를 주로 삼아 ( )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 )을 ( )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 ) 양심을 가지라
- ③ (골 3:16) 그리스도의 ( )이 너희 속에 ( )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 ④ (고후 2:14~16)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 )를 아는 ( )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 )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좃아 ( )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좃아 ( )에 이르는 ( )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3**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다음 말씀 구절을 참고로 정리해 봅시다.

말씀	조건
딤후 2:21, 요일 3:3, 벧전 1:16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 )하고 거룩해야 한다
행 6:3, 5	믿음과 ( )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약 4:8, 시 119:97	( )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한다
렘 20:9, 고전 9:16, 행 4:20	( )을 전하고자 하는 불같은 마음
고전 2:16, 빌 2:2~5	그리스도 예수의 ( )을 품어야 한다
골 4:2	( )를 항상 힘써야 한다
요 15:4~5	( )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렘 20:9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의

행 6:3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고전 2:16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딤후 2:21

---

---

---

---

---

---

---

---

↓

딤후 4:2

---

---

---

---

---

---

---

---

↓

약 4:8

---

---

---

---

---

---

---

---

↓

벧전 3:15

---

---

---

---

---

---

---

---



## 어느 여인의 복음전도

'마마 강'이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시대적 배경은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한창이던 1960년대 후반입니다. 한 여인이 천안문 광장에 나가 당시 국가에서 금지하던 복음을 공공연하게 전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당국으로부터 소환을 당해 구속되어 조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조서를 받는 경찰이 다그치며 말했습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다 자백해라!” 그 여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의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죄를 모두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조서관이 여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너하고 그 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저의 죄는 조금 특수한 죄라서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 이 죄목들을 근거로 조서를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여인의 말에 따라 그것을 일주일째 걸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아닙니다. 저의 죄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조서를 받아쓰던 경찰이 성경 구절들을 많이 받아 적다보니 그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질문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마귀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시라  
사 값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왕상 8:39, 대하 6:30)

이 말씀은 성도들이 재앙을 당하고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행 15:8)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7)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렘 17:9~10)

인간의 마음은 오직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분별하시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마귀는 창조주가 아니고 타락한 천사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잘 간파할 수 있지만 하나님처럼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엡 4:27)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엡 6:11)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하는 사건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에 유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욱기서에도 욱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아주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열정(?)을 본받아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삶 되세요!!